

## 8. 영어울렁증 부모의 실수 Best 3

### <실수 1. “엄마는 영어를 못해” 아이 혼자 공부하라고 두는 경우>

- 1) 부모가 감시자나 방관자의 역할 → 쉽게 흥미를 잃는 아이
- 2) 아이의 심정을 해아려주며 옆에서 같이 뛰는 코치가 되어야 함
- 3) 아이가 영어공부를 할 때, 옆에서 책이나 신문 등 또는 취미생활이라도 같이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기

### <실수 2. 좋아하지 않거나 어려운 책 읽기를 강요하는 경우>

- 1) 4차 산업 이론처럼 어렵고 두꺼운 책은 절대 오래 읽지 못함
  - 2) 아이가 좋아하는 책, 쉬운 책을 읽는 것이 효과적
  - 3) 원하는, 재밌는 책을 읽게 하기
  - 4) 흥미를 일으킬만한 ‘순수 창작’
    - ① 그림책(3세~초등학교 입학 전)
      - Authentic, 픽처북 : 유명한 작가들이 그린 정통 그림책, 감성적 내용
    - ② 이야기책(5~13세)
      - ex) Aladin, Beauty and the beast
    - ③ 챕터북
      - 흥미로운 주제의 짧은 소설책
    - ④ 소설
      - ex) Harry Potter, Charlotte Web
- ★ 아이와 함께 가까운 도서관을 방문하여 아이의 성향에 맞는 책을 함께 골라보세요!

### <실수 3. 아이에게 ‘영어 말하기’를 강요하는 경우>

- 1) 영어 말하기를 강요 → 아이의 영어에 대한 거부감↑ 자신감↓
- 2) 아이가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것에 아낌없이 칭찬해주기!!

#### ★ 영어교육에 성공하는 부모 되기 ★

- 1) 아이가 쉽고 재밌는 책을 읽도록 도와주기
- 2) 말하기, 쓰기는 강요 대신 기다려주기
- 3) 영어 몰입 환경 만들어주기